

[한겨레홈](#) > [뉴스](#) > [문화](#) > [음악 · 공연 · 전시](#)

“내집 사랑한단 말이 투쟁구호 될 줄이야”

강홍구 사진전 '사라지다'

은평뉴타운 개발지구 기록
개발 부조리 · 인간탐욕 증언

[한겨레]

[임종업 기자](#)  [기자블로그](#)


» <안개> 2009

잡음처럼 솟은 전신주들. 그 사이로 널따란 포장도로가 산쪽으로 달려가 소실점으로 사라진다. 길 옆에 외로이 선 향나무, 살구나무. 버려진 개 두 마리가 길을 횡단하고 한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소실점에서 걸어나온다.

서울 삼청동 몽인아트센터에서 13일부터 5월3일까지 열리는 강홍구씨의 개인전 '사라지다'에 걸려 있는 사진 작품 <철거>의 풍경이다. '사라지다'는 작가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 뉴타운 개발지구의 풍경들을 기록한 사진전.

<철거>가 유독 시선을 끄는 건 뉴타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의 폭력을 미학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. 사진은 땅 위의 사적인 각종 구조물들이 모두 제거되고 공적인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다. 마을과 마을 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따라 들어온 국가의 모습이 포장도로와 전기 · 통신로의 형태로 폭로되어 있다.

철거 이전의 모습은 이제 상상으로 존재한다. 이전에는 길의 끝과 옆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

을을 이뤄 교환과 생산을 준비하면서 살았다.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닭과 개를 기르고 철 따라 꽃과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. <철거>는 군데군데 파여 물이 고인 누더기 도로를 통해 변두리 주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암시한다. 또 그 자리를 차고앓을 외지인용 고층아파트를 암시하면서 개발의 부조리와 인간의 탐욕을 증언한다.



» <유리병> 2009

회화과 출신의 작가는 애초 영화, 광고 등의 기존 이미지를 합성한 몽타주 사진으로 현대인의 고민과 절망을 뼈뚫하게 표현했다. 1984년 상경한 이래 변두리를 전전해 온 작가는 서울 근교의 버려진 드라마 촬영 세트장에서 실제와 허구의 뒤섞임을, 폐허가 된 김포공항 근처 오쇠리 철거지역에서 삶의 양지와 그늘을 목격하면서 현실에서 이미지를 발견해 왔다.

이번 작업은 조금 다르다. 철거 지역의 한 곳에 예쁜 장난감 집을 놓거나, 위험로운 산동네에 사이버 전사 인형을 놓으며 현실과 상상을 뭉뚱그렸던 작가의 개입을 끊었다. <세한도>, <고사관수도> 등 옛 그림을 소재로 한 패러디도 자제했다. 현실 자체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.

비석거리 청색 대문집. 빨간 장미가 있는 닫힌 문 너머로 전깃줄이 들어가고 담벼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'나의 집을 사랑합니다'라는 궁체 글씨가 쓰여 있다.

"세상에! '내 집을 사랑한다'는 말이 투쟁 구호가 되는 세상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?" 작품을 보며 작가가 하는 말이다. (02)736-1447.

임종업 선임기자 blitz@hani.co.kr

기사등록 : 2009-03-10 오후 08:49:02

© 한겨레 (<http://www.hani.co.kr>)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

 **프린트하기**